

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, 환경정비

윤 이수빈 기자 | 2024.03.27 22:09 승인



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지난 26일 김해시 대동면 운하천 및 감천마을에서 '아름다운 농촌만들기' 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. 이날 공사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마을 주변 및 운하천에 방치돼 있던 생활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약 6t을 수거했다. 서정훈 지사장은 "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"면서 "정기적인 활동을 추진해 농어촌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,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"고 말했다.

저작권자 ©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이수빈 기자